

학교법인 창성학원

2025학년도 제11회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2
재적임원	8	2
참석임원	5	1

1. 회의일시: 2025.11.27.(목) 16:00-16:45

2. 회의장소: 대덕대학교 정곡관 10층 소회의실 또는 Zoom화상회의 참석

3. 회의 소집 통보일: 2025.11.19.(수)

4. 임원 출석 현황

□ 참석인원(6명)

- 이사(3명): (직접참석) 김대성, 김태근, 임정섭
- 이사(2명): (Zoom화상회의 참석) 김조용, 이정민
- 감사(1명): 조현준

□ 불참 인원(4명)

- 이사(3명): 강경태, 김현리, 성차용
- 감사(1명): 장숙영

□ 배 석 자

- 법인사무국(3명): (간사) 김영훈 총무처장, 윤지연 과장, (서기) 최보경 담당

5. 회의안건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근

이사

김조용

가. 의결 안건

- 제1호: 대학 적립금 용도(목적) 변경 및 사용 계획 승인(안)
- 제2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제3호: 대덕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DDU Vision2030) 재수립(안)
- 제4호: 학교법인창성학원 정관 개정(안)
- 제5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신규임용 동의(안)
- 제6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포함) 재임용 동의(안)
- 제7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징계의결 요구(안)
- 제8호: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안)
- 제9호: 2025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법인 수익사업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0호: 2025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법인 일반업무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1호: 중등학교 교원 휴직 동의(안)
- 제12호: 2025학년도 대전중앙중학교회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3호: 2025학년도 대전중앙고등학교회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4호: 학교법인창성학원 개방이사 추천(안)
- 제15호: 김조용이사 후임이사 선임(안)
- 제16호: 강경래이사 후임이사 선임(안)
- 제17호: 김대성이사 후임이사 선임(안)
- 제18호: 김현리이사 후임이사 선임(안)

나. 기타 협의 및 보고안건

- 제1호: 대학 현안 문제 보고
- 제2호: 이 교사 합격자 취소 보고(안)
- 제3호: 2026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신규교사 채용 협의 승인 취소 보고
- 제4호: 2025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예산전용 보고
- 제5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예산전용 보고

다. 기타 안건

- 제1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 건

6. 회의 내용

가. 성원 보고

2025학년도 제11회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17조에 의거 재적 이사 8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성원되었음을 간사가 보고하다.

이사  이사  이사 

현재 김조용, 이정민 이사는 ZOOM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중이며 금일 조현준 감사가 참석하였다고 말한다.

나. 개회 선언

의장(이사장: 임정섭) 2025학년도 제11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학교법인창성학원 정관 제 27조에 의거하여 보고 안전부터 상정하되 보고는 생략하겠다고 하다.

(참석 이사) 동의하다.

다. 의결 안건

(이사 김태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 안전부터 먼저 상정해주시기를 바라며, 본인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안전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전한다고 하다. 특히 제11호 중등학교 교원 휴직 동의(안)은 처리되지 않으면 대상자 개인의 불편함이 생길 것 같아 요청한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지난번과 동일하게 김태근 이사께서 이사회 안전 순서를 변경해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하다. 제11호에서 제13호까지 안전을 먼저 처리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다. 참석이사에 의견을 묻다.

(이사 김대성) 안전순서 변경의 이유 중 하나가 휴직 교원에 대한 개인 고충이 심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맞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대학 추경 안건은 당사자인 교직원과 그 식솔까지 5-600여명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데 교원 1인의 휴직보다 해당 안건의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하다. 그러한 이유로 안전순서를 변경해달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지난 회 차 이사회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했듯이 제11호, 제12호, 제13호 안전, 특히 제11호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하다. 본인은 제11호 안전에 대해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김조용

서는 찬성의 의견이라고 하다.

(이사 김조용, 이정민) 기존 소집통지 시 안전 순서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이사회가 운영되지 않아 중등교원 휴직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다. 본인은 제11호 안전에 찬성한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참석이사의 의견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호 대학 적립금 용도(목적) 변경 및 사용계획 승인(안)을 상정하다.

(* 대덕대학교 장화식 부총장, 김호겸 기획처장이 안전설명을 위해 16:09에 배석하다.)

(* 김태근 이사가 16:09에 퇴실하였다가 16:14에 다시 입장하다.)

(배석 김호겸 처장)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추가 질문이 있으면 발언해달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이미 말했다고 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올라온 안전에 대해서만 심의할 의무가 있다고 하다. 대학평의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다. 대학평의원회를 거쳤는지 묻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 처리를 했는지 묻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교육부에서 원한 것이 무엇인지 묻다.

(이사 김태근) 평의원회 의장을 해촉하는 것이 당연한지 묻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그렇다면 평의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그 사유를 치유하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교육부에서 공문이 오지 않았는지 묻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나머지 의원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묻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근 이사 김조용

(이사 김태근) 의장에 대해서만 말하라고 하다. 의장을 해촉하는 것이 당연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교육부에서 말한 그대로 이행하라고 하다. 치유를 하고 말하라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대학의 답변이 교육부에 올라가 있고 교육부에서 그에 대한 회신이 예정이라고 하다. 교육부에 올렸는데 현재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답변을 듣고 하자고 하다. 본인은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도 현 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안전이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때는 교육부의 공문이 오기 전이었다고 하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온 공문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배석자의 설명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도달한 공문이 결과가 나온 최종 공문은 아닌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교육부에서 도달한 공문을 보여달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교육부에서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공문이 도착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하다. 최종 결정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교육부에서 의원 해촉의 적법한 규정이 없어 보인다고 하였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현재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명문화된 규정이 상위법에 있다면 교육부에 알려달라고 했다고 하다. 하지만 현재 그 공문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최종 공문이 도달하기 전의 공문을 보여 달라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현재까지도 교육부와 수차례 통화하고 해당 건에 대해 업무가 진행 중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안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의를 해야 하지만 본인이 생각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김주홍

하기에 이 안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결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본인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여달라고 한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그 공문은 최종 공문이 아니라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고발한 상태라고 한다. 경찰의 조사를 통해 옳다 그르다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이사 김대성) 교육부에서는 불법, 위법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사 김태근) 교육부의 공문을 보여달라고 한다.

(이사 김조용) 공문이 법인으로 왔는지 대학으로 왔는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대학으로 왔다고 한다. 법인으로 온 공문은 없다고 한다.

(이사 김조용) 이사가 대학으로 온 공문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한다.

(이사 김태근) 대학으로 오든 법인으로 오든 그 사실을 알아봐야한다고 한다.

(이사 김조용) 현재 평의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문을 거쳤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다.

(이사 김태근) 현재 평의원회 의장이 없는데 어떻게 적법한 자문을 거쳤다고 하는지 묻다. 그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한다.

(이사 김조용) 대학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사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이 위법인지 묻다.

(이사 김태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교육부의 공문을 제공해달라고 한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교육부에서 온 공문도 최종 결과를 통지한 공문은 아니라고 한다.

(이사 김조용) 법인 이사가 대학의 공문을 달라고 하는 것은 대학 경영 침해라고 한다. 대학평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성 이사 김조용(인)

위원회 의장이 궐위되어 있으면 권한대행이 있을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대학평의위원회장이 누가 궐위됐다고 했는지 묻다.

(이사 김조용) 대학 평의위원회 자문을 거쳤는지 재차 묻다.

(배석 김호겸 기획처장) 그렇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대학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인은 본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이의 다른 점에 대해 교육부의 공문을 말하는데, 교육부 공문도 배석자의 설명에 따르면 최종 통지가 아니므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대학에서는 모든 절차를 거쳐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다. 이사회 자리에서는 대학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절차대로 처리됐는지는 기본으로 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판단해주어야 한다고 보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이 자리에서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동의하다.

(이사 김대성) 신규임용, 재임용 안건도 대학에서 절차를 거쳐 총장이 제청을 하였으면 제청의 전 단계는 대학에서 이루어진 절차라고 하다. 대학에서 이루어진 절차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는 것이라고 하다. 본인도 그 생각에 동의한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리고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과반수의 자문을 거쳐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설사 절차상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동일한 사람이니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을 하더라도 김태근이사가 우려하는 상황은 없어 보인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대학 평의위원회 법적 자문절차에 법적 또는 정관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이를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김조용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는 것은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대학경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견제의무를 다하는 행위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그 결론이 도달해있는 문서가 어디 있는지 묻다. 아직 진행과정이고 교육부에서도 대학에 법적인 규정이 없다면 앞으로 해당 부분을 마련하라는 것이 주문이었고, 김태근이 사계서 말했듯이 원복시키라는 주문은 관할청에서 있을 수도,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다. 그런 주문은 아니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계획을 내리는 차원이었다고 하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상위법에도 따로 없고 이러한 일이 빈번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니 조사나 감사를 통해 지적을 해서 처벌을 하라는 입장이라고 하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예산은 사용하는 시기도 중요하다고 하다. 예산은 내년 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하는데, 시기가 촉박하다고 하다. 교직원 급여와 학생을 위한 복지와의 관련된 기금을 쓰겠다고 한 상태여서 교직원 뿐 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태라고 하다. 우리는 적법하다고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대학 내에서 치유하게 두고 이사회에서 이 내용 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간곡히 부탁한다고 하다.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교직원도 의견을 주고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지난 번에 11월 월급이 못나간다고 말했는데 11월 월급은 어떻게 나갔는지 묻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다. 자금 운영의 주체는 이사장과 총장인데 운영 상황을 미리 대비 했어야 한다고 하다. 닥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다. 예산을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다. 대학이 살고자 하면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적립금의 지속적인 사용 시 나중에 대학과 법인은 어떻게 되는지 묻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지금 대학이 살고자 안전을 상정한 것이라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장화식

(이사 김태근) 대학이 살고자 한다면 예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올해 준비를 많이 해서 외부재정지원사업을 가져왔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본인이 부임한 이후에 국제협력단을 만들었는데 당초 외국인 유학생이 6명에서 현재 450명에서 500명을 육박한다고 하다. 여기서 새롭게 수익으로 창출된 것이 25억에서 30억이라고 하다. 열심히 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하다. 총장 부임 이후에 60억이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기금이 줄었다고 하다. 그렇게 부임한 것인지 아닌지 묻다. 그리고 또 학생수가 계속 줄었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그런 것을 전제로 총장으로 부임한 것은 아니라고 하다. 그리고 지금 교직원 봉급에 대한 예산을 심의 중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학생을 선발하는데 여력을 다했어야 한다고 하다. 학생의 숫자가 줄어들면 누가 책임지냐고 하다.

(이사 김대성) 입시가 계속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다. 본인이 부임한 이후 첫해에는 60.8%였고, 그 다음해에는 62.4%이고 올해는 그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입학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안전 통과가 가능한지 묻다.

(이사 김태근) 그것과는 상관 없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본인이 부임 후 수익을 창출하여 재정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것은 자연뺨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김주영

(배석 장화식 부총장) 구성원들이 밤을 새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외부재정지원사업을 45억 가까이 가져왔다고 하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다. 그런 발언은 교직원의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총장께서 혼자 했다고 하니 하는 말이라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혼자서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본인이 와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하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사업이었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자연스러운 사업은 아니었다고 하다. 그만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하다. 대학의 일을 총괄하고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총장이라고 하다. 총장께서 전체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가져왔다고 하다.

(* 김태근이사가 16:41에 퇴실하다.)

(이사 김대성) 퇴장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자고 하다.

(* 16:43에 김태근이사의 퇴장여부를 유선을 통해 최종 확인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현재 김태근이사가 퇴장하여 이사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하다.

(* 대덕대학교 장화식 부총장, 김호겸 기획처장이 16:43에 퇴실하다.)

라. 기타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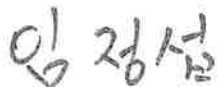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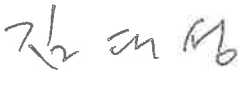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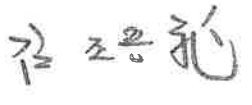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안)을 상정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본인을 포함하여 간서명은 김대성, 김조용 이사가 진행하자고 제안하다.

(참 석 이 사) 동의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이 오늘의 이사회 마무리 발언에 이어 폐회선언이 있음. (*2025.11.27.(목) 16:45)

이사  이사  이사 

2025.11.27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임정섭



이사

강경래

(서명)

이사

김대성



이사

김조용



이사

김태근



이사

김현리

(서명)

이사

이정민



이사

성차용

(서명)

감사

조현준

